

해남군, '인구 7만 회복' 다시 뚝다

올 핵심 목표 설정... 시책 보고회
 의료복지 확충 출산환경 조성
 기업·단체 전입장려 기여금 지원
 분야별 다양한 시책 개발 논의

해남군이 인구 7만명 회복을 목표로 시책 발굴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8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000여명이 감소하면서 7만명 선이 무너졌다. 학업과 이직에 따른 전출, 저출산, 고령화 등 농어촌 지자체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남군은 지역발전 전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구 7만명 회복을 위해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찾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인구 증대 시책 보고회를 열어 인구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내 고교 졸업생 정착 지원, 시골학교 특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정착,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과 연계한 인구 유입,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인구증대를 위한 분야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해남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타지에 두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와 기업 임직원의 주소 이전시 전 입 인원에 따라 기업에 전입장려기여금을 지원하 는 등 전 군민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도 추진 하기로 했다.
 합계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해남군은 지난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인구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망률 대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군은 분 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에서 출산, 보육에 이 르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출산에서 보육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 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착공,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귀농과 귀어, 귀촌 희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귀농 정착 소득기반 조성 등으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 로 갖춰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발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청년센터 건립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소통 장구를 만들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두드림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매니 저 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과 해남형 클라우드펀 디ng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 해결 이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군민들과 소 통하며 다양한 정책 개발로 활력 넘치는 해남, 살 기 좋은 해남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에 국제규격 '전천후 실내승마장' 들어선다

홍농읍에 오는 3월 착공
 휴양·체험·관광자원과 연계 운영



영광 실내승마장 조감도.

영광군이 지역의 휴양·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할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승마장을 건립한다.
 영광군은 군민 모두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 계절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광 실내승 마장'을 오는 3월 중으로 신축한다고 8일 밝혔다.
 실내승마장은 지난 2014년 홍농읍에 개장해 운 영 중인 실외승마장 자리에 들어선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는 실내승마장은 국 제규격에 맞춰 신축한다. 부지 2만4000㎡, 연면적 2824㎡(70m×30m) 규모로, 지붕을 막구조물로 씌우고 실내 바닥은 특수섬유가 포함된 혼합구사 로 마감한다.
 바닥 마감재는 사계절 최적의 수분을 유지함으 로써 충격완화 효과가 뛰어나 말과 기수의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소재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실내승마장이 준공되면 힐링공간으로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전국 단위의 각종 승마대회

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근에 들어선 '영광테마박물관'이 유원지 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명소로 가꿀 예정 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승마가 접하기 어려운 귀족 스포츠라는 편견을 탈피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승 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광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목포농협 사회복지시설 12곳에 생필품 전달

목포농협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복지관 ·요양원·아동원 등 사회복지시설 12곳을 방문, 농 촌사랑기금으로 마련한 쌀·라면·세제·화장지 등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농촌사랑기금은 목포농협이 농업·농촌·지역사 회 공헌을 위해 연간 카드사용액의 0.1%를 적립 하는 사회공헌기금이다.
 목포농협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농촌사랑기 금을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총 54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목포농협 주부대학 동창회는 쌀 소비촉진 및 어 려운 이웃돕기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양질의 쌀 을 사용해 떡국떡을 만들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 탁했다.



박정주 목포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우력(주), 신안군에 장학기금 2000만원 기탁

어업회사법인 신안우력주식회사 박인재 대표이 사와 임원들은 최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안군장학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기금 을 기탁했다. <사진> 신안우력(주)은 흑산도 우럭 생산어민들이 직접 설립한 어업회사법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주들의 뜻 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박인재 신안우력 대표이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 해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보다 많 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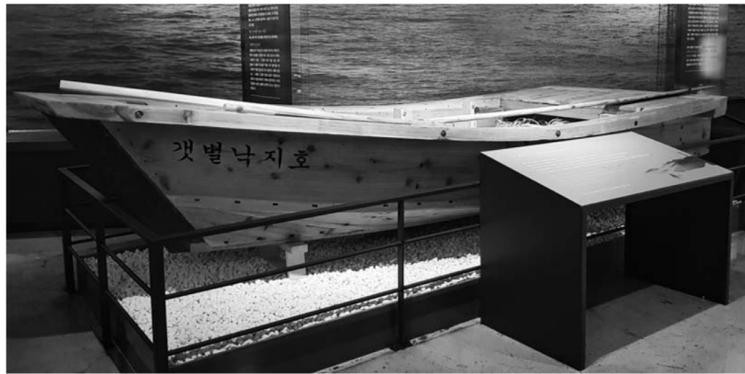


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전국 최초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 개관

맨손어업 기술·낙지어구 등 전시

무안군은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무 안낙지 맨손어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을 전국 최초로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맨손어업 유산관은 해제면에 위치한 무안항도 갯벌랜드 내 생태갯벌과학관 1층에 150㎡의 규모 로 조성됐다.
 '손에 손잡고 함께 이어가는 갯벌낙지 맨손어 업'이라는 주제로 맨손으로 낙지잡는 방법과 낙지 어로 도구를 비치해 갯벌에서 낙지잡는 어업인의 생활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물로는 가래낙지(일반 삼보다 작고 끝이 뾰족한 삼으로 잡는 법), 팔낙지(도구 없이 맨손으 로 잡는 법), 햇벌낙지 등 다양한 맨손어업 기술과 낙지어구를 전시하고, 팔낙지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생태갯벌과학관에서 스마트블리치, 디지털수 족관 등 여러가지 실감형 콘텐츠와 미술 융합,



전국 최초로 개관한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에 재현해 설치한 전통낙지배. <무안군 제공>

김 굽기 등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아이들과 함 께 다양한 시각, 촉각의 해양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의 갯벌은 전국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곳에서 채취한 무안새발낙지는 풍부한 영양과 부드러운 육질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완도에 '해양치유 아토피 스파' 건립 군, 힐링웰과 업무협약...86억 투자 내년 3월 준공

완도군은 최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힐 링웰(주)과 '해양치유 아토피 스파' 건립을 위한 투 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힐링웰은 86억원을 투자해 아토피 치유 스파텔 을 건립한다. 힐링웰은 완도 특산품인 해조류·비 파 등을 활용하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토피 스파는 신지면 신리 일원 5280㎡ 규모의 힐링스파텔 1동과 관리사무소 등이 건립되고, 28 명의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힐링웰은 아토피 힐링센터 운영 및 관점영·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을 위한 각종 건강식품과 화 장품을 생산하는 신생 기업이다.
 최영주 힐링웰 대표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

과 연계한 피부질환 치유 전문시설을 건립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산업 발전에 일 익을 도모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아토피 전문 치유 스파텔을 건립해 완도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